

대림 제4주일

기도서 P. 220 A해

제1독서(이 사 7, 10-14)
제2독서(로 마 1, 1-7)
복 음(마 태 1, 18-24)

숨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장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1980년 성탄 메시지

강생의 신비와 인간 존엄성

김 재 덕 주교

「하느님의 독생성자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강생의 진리는, 우리 구원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를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신비입니다.

이 진리를 대할 때, 우리에게는 술한 의문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찌하여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일개 피조물이 되셔야만 하는가?

전능하신 하느님으로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 굳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강생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그러나 이 물음들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상황 속에서, 더욱 절박성을 띠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오늘날도 예나 다를없이, 아니 더 긴박하게 고통과 불안, 불화와 불의, 그리고 부조리로 가득찬 세계 속에서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인류는 아직도 정의와 평화 그리고 자유가 넘쳐야 할 구원의 상태와는 거리가 먼 암담한 현실 속에서 계속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원하면서,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강생의 신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을 함께 생각하고저 합니다.

일찌기 시편 작가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 에 하느님께서서는 이토록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보살펴 주십니까?」(시편 8:4) 하고 의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무엇이기 에, 그것도 죄에 젖은 인간을, 하느님께서서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오직 「하느님은 사랑이시다.」(I요한 4:8)라는 말 밖에 달리 답이 없습니다. 실로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요한 3:16)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굳이 인간이 되시지 않고서도,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도, 제한도 없으며, 모든 이해관계를 일절 초월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저 주시고저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저 하시는 「임마누엘」(마태오 1:23) 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은, 오직 당신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생의 신비」는 바로 「사랑의 신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겠고, 또한 우리 인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간은 존엄하고, 따라서 그 인권은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나 왜 인간이 존엄하고, 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그 근본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인간존엄성을 그저 인간자체에서 찾으려 하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존엄성을, 마치 인간 절대성으로 착각하는 부질없는 교만을 범하게도 되고, 따라서 스스로 제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로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존엄성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에게서, 특히 하느님의 사랑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을 따라 인간을 창조해 주셨고, 또한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인간존엄의 근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시고 또한 사랑하시기까지 한 인간을, 누가 감히 무시하고 몰려질 수 있으며, 더구나 유린하고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거스리지 않고서는, 갈라 누구도 인간을 박대할 수 없으며, 그러기에 인권유린은 곧 하느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더우기 강생의 신비에서 보듯이, 하느

(2면 계속)

Ⅱ <1면에서 계속>

1 독생성자가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은, 「인간존엄성은 바로 하느님의 존엄에서 승화되었을 잘 말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인권은 곧 신권」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강생의 신비에서 사랑의 신비를 깨달았고, 또한 사랑의 신비에서 인간의 존엄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인간을 더욱 존엄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80년대라는 새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사회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존엄성과 그의 원천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고 인간존엄성이 결한 그런 사회는, 이미 그 존재의 의미조차 없으며, 허울좋은 한늘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민주사회란, 모든 사람이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권력이나 물질적 부에서 찾아서 는 않되며, 인간존엄성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이든지—비록 가난하고 약하다 할찌라도—인간인 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 우리 사회는 빛나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 경제, 문화사회를 인간애(人間愛)와는 무관한양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애는 인류사회의 기본윤리요 그 대도(大道)입니다. 만일 인간애가 결여된 사회라면, 정치는 필경 독재와 억압으로 행세할 것이고, 경제는 탐욕과 수탈만을 낳게 할 것이며, 문화는 오히려 퇴폐와 타락만을 낳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회는 비인간화된 수박에 없으며, 인간은 한낱 도구로 타락하고, 사회전체는 결국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구유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오 25:40)라고 말씀하실 만큼, 오히려 약하고 가난한 자를, 병들고, 죄에 신음하는 자를 더욱 부드러운 사랑으로 감싸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에 우리 또한 강생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사랑의 길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이땅에, 보다 인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사회를, 그리고 보다 정의롭고 복된 사회를 이룩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1980년 성탄절

(천주교 전주교구장)



憶! 同參!

—문밖의 사람들—

지난 12월 초에 「문밖의 사람들」이라는 TV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다. 수사극인데도 소재 자체가 특이할 뿐 아니라, 그 의도하는 바가 매우 좋았다. 내용인즉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갈등, 그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 무언가 조금쯤은 달라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놀라운 것은,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백안시(白眼視)되었던 파울로 프레이레(Paulo Freire)가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프레이레는 자신의 모국 브라질이 안고 있는 문제점—가난·문맹(文盲)·정치적 억압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브라질의 도시나 지방의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도시의 테러, 인종대립, 인구폭동 등의 혼란과 무질서의 상황에 체념해버려 무기력한데다가 무저항의 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프레이레는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에 착수했다. <현실을 읽고 쓸 줄 알게> 하는 성인교육을 바로 <현실비판이요 현실개혁의 길> 이었다. 프레이레의 정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인간해방을 위한 의식화 교육에 힘쓰던 프레이레는 결국 제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다. 가난하고 눌림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인데,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문밖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자. 입술로만 나불대는 사랑의 노예보다는 고동치는 심장으로, 그리고 뜨거운 손을 마 주잡으며 사랑을 나누자. 있는자가 없는자와 따뜻한 말한 그릇을 놓고 식탁을 함께 할 때, 거기에 참 평화가 있다. 그리고 없는자가 있는자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그것이 바로 참 평화의 인사인 것이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 때,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우리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순 정 이 산 채



선민의 의미는?

(축)

성 탄

천주교 전주 교구청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천주교 전주 가톨릭 센터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풍습 몇 가지—(1) 주 노 신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전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 인간에게 이처럼 크고 위대한 사건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이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온 인류 전체의 가장 큰 명절이 되었고 모든 이의 가슴에 따스한 입김을 채워주고,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훈훈한 마음이 되는 크리스마스— 이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천국문을 열어주신 메시아(구세주)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나라와 민족에 따라 여러가지 풍습과 축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몇 가지를 살펴보죠. Christmas는(그리스도의 미사)라고 뜻으로 흔히 쓰는 x-mas는 크리스도라는 희랍어(xristos)의 첫자를 따서 christmas를 약한 말입니다.

1. 성탄카드(christmas card)

우체부 아저씨를 바쁘게 하는 성탄카드—, 이 마음 훈훈한 풍습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죠, 130년쯤 (헨리 콜)이라는 영국 귀족이 자기 친구인 <가르단>에게 그리게 해서 몇몇 친구에게 보냈다고도 하고... 또 달리 영국 화가 <존.켈코스트호스트리>라는 화가가 맨처음 그려서 자기 친구들에게 보낸 것이 유행이 되어 세계적인 풍속이 될거죠, 평소에 친구나 윗 어른께 편지를 보내기 게으름을 피웠던 미안스름을 살짝 씩그마이, 서로의 우정과 신의를 다시 확인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2. 성탄 송가(Christmas Carol)

이때쯤엔 성당, 예배당 거리마다, 집집마다 들리는 아름다운 성탄노래는 지금부터 600년전쯤 불란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독일, 영국등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었고 지금은 100여곡 이상이 온 세계에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2월 4일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어 장작을 태우며 그 불꽃 주위를 돌거나 굴뚝을 둘러싸고 즐겁게 노래 부른답니다.

3. 산타클로스 할아버지(Sant Claus)

크리스마스 하면, 곧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죠,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기다려지고 어른의 마음도 호뭇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이름, <산타클로스>—정말, 제실까요?

산타클로스는 약 1700년전 터키 근처 소아시아 <리마>의 당시 주교님이셨던 <니콜라오> 성인을 말하죠. 성니콜라오라는 이름을 네델란드식으로 발음해서 <산타, 클로스>라고 불려지게 됐답니다.

니콜라오 주교님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털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남몰래 나눠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343년에 세상을 떠나 지금도 이태리 <바리>시에 안장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니콜라오 주교가 남몰래 남을 도와주고 봉사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150년경에 <루어>라는 미국 시인이 <크리스마스—이브>라는 자기 시(詩)를 “성니콜라오가 성탄 밤에 착한 어린이들의 집에 선물을 주러 굴뚝에 들어온다”라는 내용으로 엮었던 것이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지금도, 분명히 제칩니다. 우리 주위에 남몰래 좋은 일하고, 남몰래 남을 도와주는 착한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오늘의 산타.클로스가 아닐까요?

요심이 (385) 김병오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최윤경 미장원

최윤경 미용실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 역전 앞

최 윤 경(유리안나)

전화 ②8653

개인지도식 교습—학생부, 성인부

제일 주산 경리학원

교재 무료배부. 시간은 자유로 정함

위치 : 한국은행 앞 전화 ④ 3132

원장 성 달 용(안드레아)

□ 81년도 원아모집 □

성체 유치원

입학자격 : 만 5세~6세 까지

모집인원 : 남·여 80명(2학급)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80년 12월 1일~12월 20일

1980년 12월 20일 오후 4시까지

연락 : 노충동 수녀원내 ☎ ②8408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절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로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운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경)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 대립질 및 성탄절 꽃꽂이 판매 있음

※교우여러분께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 2628

범 띠도(덕배)·이 마리아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부부: 일반(사무)직 약간명

2. 응시자격

가. 만30세 이하의 남자로서 병역

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나. 졸업증명서

다. 성적증명서 라. 병적증명서

마. 주민등록등본

바.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통

4. 접수기간 : 80. 12. 12~12. 26 17시

5. 접수처 : 당조합총무과 ②0191~4

6. 전형방법

가. 제1차(필기) : 상식 논문 주산

나. 제2차(면접) : 1차합격자에한함

7. 전형일시

가. 1차 필기 : 80. 12. 27(토) 14시

나. 2차 면접 : 80. 12. 30(화) 14시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조합 총무

과에 문의 바람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양 윤 모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주교님 메시지 방송...12월 25일 아침 8시 50분, K. B. S 전주방송, 많은 청취 바랍니다

- 1. 푸르실로 소식...여성 제 9차 81년 1월 6일~9일, 남성 제14차 1월 12일~15일, 여성 제10차 1월 19일~22일, 남성 제15차 1월 26일~29일에 각각 있습니다.
2. 군산지구 교도소 재소자 세례식...22일(월) 오후 1시,
3. 제2지구 주일학교 연극 종합발표회...12월 27일 오후 2시, 월명동 성당에서
4. 대학생 졸업생 송별회...12월 27일(토) 오후 3시, 가톨릭 학생회관, 회비-재학생 1,500원
□ 전주교도소 천주교 신자들에게 따뜻한 형제애를 나누시다
※ 방법-각 성당 신자전체 또는 신심단체별로, 연락-전주교도소 교무부장(차동주) 전화 6-3262
□ 서석구(사도요한) 신부 영명축일(12월 27일) 축하연 없습니다.
김병환(사도요한) 신부 영명축일(12월 27일) 축하연 없습니다.
김기수(사도요한) 신부 영명축일(12월 27일) 축하연 없습니다

★ 술정미대금 연말까지 정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보광출판사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임기성
보좌 신부 박성범
사도 회장 김현우

- 1. 축! 영세: 저녁 미사중에
2. 연탄: 나보다 더 추운 형제를 위하여
3. 성모회: 공식 미사후, 강당
4. 중앙의 밤: 23일 오후 7시
5. 주일학교: 25일 오후 1시 30분-성탄 일마. 아빠.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J.O.C 일일 찾침: 24일 저녁 7시, 강당-이웃돕기
7. 특별강론: 저녁 미사후, 28일-예수 탄생 설화에서의 "꿈"(마태오 1장. 2장), 1월 4일-예수의 죽보(마태오 1:1~17)
8. 일상 기도문 사무실에 있습니다
□ 지난주 불헌금: 462, 421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 1. 성탄 미사시간 안내: 24일 저녁 7시-성탄 전야미사(영세식 있음), 자정 미사-성탄 밤 미사, 25일 오전 10시-낮 미사, 저녁 7시-밤 미사
2. 영세식: 24일 저녁 7시(35명)
3. "축" 본당 신부님 영명을 축하합니다(12월 27일) 27일 축하연 없음
4. 성탄 "메씨아의 밤"행사: 24일 저녁 8시부터
5. 할머니회: 공식 미사후
6. 성탄 전례 담당: 자정미사 독서-강남준. 조동근, 신자들의 기도-한형수, 10시 낮 미사 독서-김낙균. 김광수, 신자들의 기도-김한기
□ 지난주 불헌금: 146, 890원

(노충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충근
사도 회장 박준근

- 1. 축! 예수 성탄(미사 안내): 24일-자정미사, 25일-오전 9시 어린이 미사, 오전 10시 성탄 대 미사, 저녁 7시 미사,
2. 축! 영세식: 23일 오전 10시, 대모님을 모시고 9시 까지 나오세요(유아 영세도 있음)
3. 신년도 각 단체의 활동계획서를 속히 바람
4. 베소라 성서 강의: 매주(화)저녁 7시 30분~9시까지
5. 성령 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6. 금주 성경 읽기: 구역의-나눔. 하바곡. 스바디아. 하께. 즈카리아. 팔라기서 전체
7. 불우이웃 돕기 성미운동: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8. 교무금 완납의 달: 12월에는 교무금을 완납 합시다
□ 지난주 불헌금: 203, 705원

(술정미)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 축! 세례식: 12월 21일 오전 9시
2. 성당신축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12월 19~21일
3. 예수 성탄축일 미사시간 안내: 12월 24일 성탄전야제 오후 8시-자정미사, 12월 25일 10시 공식미사. 오후 7시 미사
4. 80년도에 약속하신 불헌금을연말까지 완납바랍니다
5. 81년도 교무금 수입을 하지않으신 형제들은 사도회에서 배정 하오니 양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오만회 릴레이: 12월 24일 오후 7시, 본당 사무실
□ 지난주 불헌금: 206, 560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오
사도 회장 양상열

- 1. 축! 영세자 35명: 영세식-24일 오후 2시
2. 성사를 아직 못 보신분은 오늘중으로 보세요
3. 메씨아의 밤: 24일 오후 7시 30분~11시,
4. 향토사단 영세식: 20일 오후 2시, 많은 기도 바람
5. 밀린 교무금을 연말까지 완납 합시다
6. 81년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은 분과위원장 28일까지
7. 오늘은 애령 주일: 미사후 총회가 있습니다
□ 지난주 불헌금: 268, 435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홍
사도 회장 유석중

- 1. 축! 영세: 공식 미사중에,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2. 축! 영명: 27일-보좌 신부님 영명축일(사도요한)
3. 사도회 정기 총회: 공식미사 후(각 단체장 꼭 참석)
4. 판공 심사 일정: 21일-직장인, 22일-전동. 풍남동. 기타동, 23일-동교. 서교. 남노충동, 24일-동완산. 중정. 다가동
5. 피미시움: 2시 6. 자모회: 10시 미사후
7. 주일학교 성탄행사: 23일 오후 7시 30분
8. 중. 고생 성탄행사: 24일 7시 미사후
9. 성탄미사 안내: 24일-자정미사, 25일-9시. 10시. 오후 7시
10. 성탄 전례 담당
자정미사: 사회-양현홍 ① 임순만 ② 김동수,
10시미사: 사회-양현홍 ① 이덕수 ② 고수창,
저녁미사: 사회-정양수 ① 정동희 ② 이영철,
□ 지난주 불헌금: 357, 980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총회: 공식 미사후-사도회 임원. 고문. 감사. 반회장. LM간부. 각 신심단체 임원들
2. 성탄 행사: 주일학교 23일 저녁, 복자의밤 24일 저녁
3. 아기 예수님께 예비자 불헌 (외인들을 천주교회로 인도하는 서약서)
4. 남성. 여성 푸르실로: (계시관 참모)수강 신청
5. 불헌금 미수 30까지 완납 바람
6. 81년도 본당 유지에 적극 참여 바람
7. 성탄 미사 안내: 24일-저녁 7시 30분 전야미사, 저녁 11시 30분 성탄, 25일-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 지난주 불헌금: 305, 550원

(파티마)

전화 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협

- 1. 영세식: 오늘 1시 30분, 대부분 1시까지 참석요
2. 가족 노래자랑 신청: 오늘까지
3. 가을 판공 심사는 오늘마감입니다
※ 부주교님 김동준 신부님께서 미사시와 미사전후에 고백 성사 주십니다
4. 미사안내: 24일-아침 7시미사, 저녁 11시-구유 행렬후 성탄 전야미사, 25일-오전 10시 30분 미사, 저녁 7시
□ 지난주 불헌금: 96, 355원 어린이 불헌금: 2, 150원
교무금: 367, 000원